

어명소 2차관, “GTX-A 공사 및 운영준비에 만전” 강조 - 4일 GTX-A 용인역 현장 찾아 「운영준비 점검회의」 개최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4일(목) GTX-A노선(삼성~동탄) 용인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-A노선 전 구간(운정~동탄) 공사 및 수서~동탄 구간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어 차관은 GTX-A노선 전 구간(운정~동탄)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, “수서~동탄 구간 내년 상반기 개통을 국민과 약속한 만큼,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”면서,
 - “특히, 용인역은 GTX-A를 계기로 수도권 남부 교통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성 등도 세심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어 차관은 국가철도공단, GTX-A 사업시행자(SG레일), 서울교통공사,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‘GTX-A 운영준비 점검회의’를 개최하고,
 - “GTX-A 노선은 신규구간 개통과 신규차량 운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많다”면서,
 - “GTX-A 이용자 뿐만 아니라 SRT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통 전 시험 운행 등 영업 준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기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또한, 회의 후 용인역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“올해 장마기간에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5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